



대학주보

전공기초 · 필수 4개 중 1개 강사가 맡았다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전공기초 · 필수 과목은 학생들이 입학 이후 처음 접하게 되는 교과목이다. 동시에 학과의 교육 방향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핵심 과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구성은 학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학과에서는 상당수의 전공기초 · 필수 강의를 강사가 맡고 있다. 우리신문은 단과대별 전공기초 · 필수 강의의 담당 교원 현황을 분석해 봤다.

전공기초 · 필수 강의 25.3% 강사가 담당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지난 학기 전공기초·필수 강의의 경우 총 1,729개 강좌 중 437개(25.3%)를 강사가 담당했다.

단과대별 전공기초·필수 전체 강의 대비 강사 담당 강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음악대학 80.2% ▲미술대학 68.8% ▲무용학부 54.8% ▲자유전공학부 38.9% ▲호텔관광대학 35.3% ▲국제대학 33.3% ▲예술·디자인대학 32.1% ▲문과대학 27.8% ▲간호과학대학 23.0%

▲경영대학 21.9% ▲정경대학 21.1% ▲체육대학 18.4% ▲외국어대학 18.2% ▲생활과학대학 14.3% ▲한외과대학 9.7% ▲생명과학대학 4.8% ▲약학대학 2.7% ▲이과대학 2.1%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8% ▲공과대학 0.7%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전자정보대학은 강사 담당 전공기초·필수 강의가 없었다.

일부 학과에서는 전임교원이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담당하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학과는 이를 원칙으로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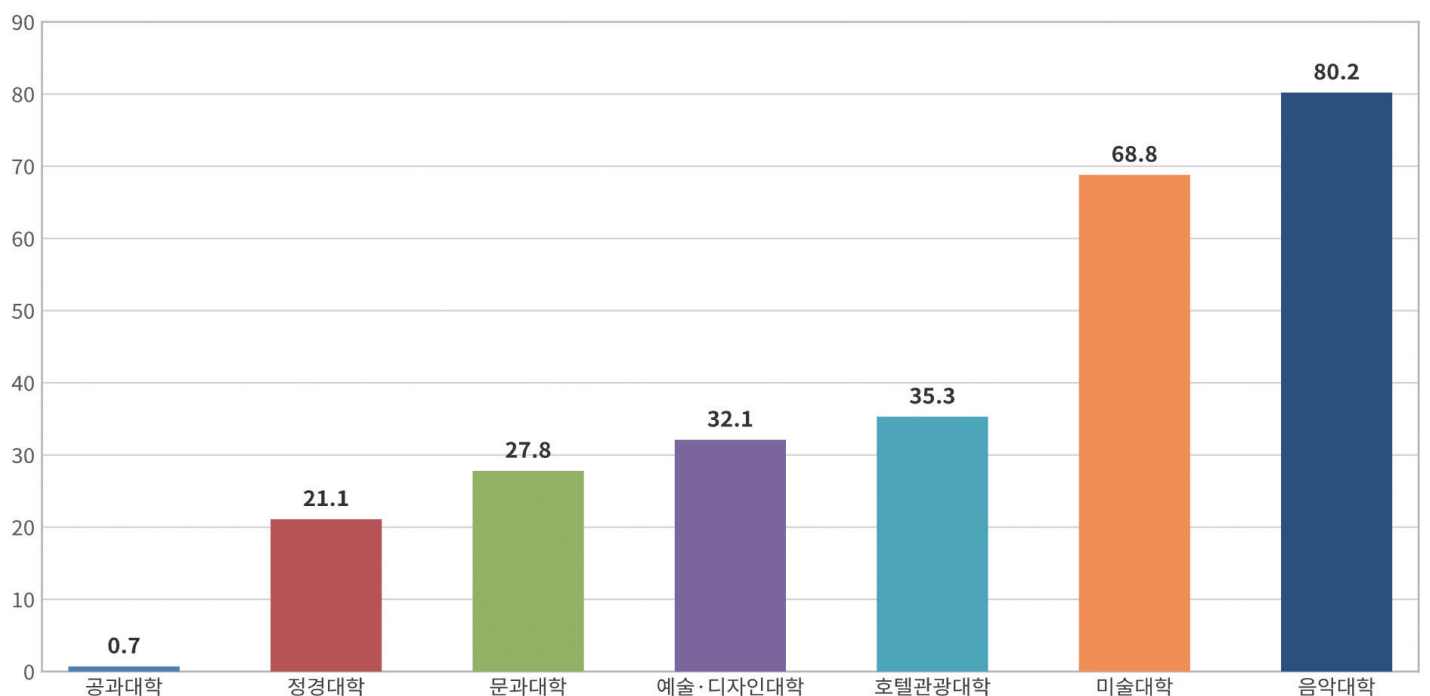
고 있다. 사학과 박윤재(사학) 학과장은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분야인 만큼 전임교원이 책임감을 갖고 수업하는 것을 학과 내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강사 담당 강의 비율이 0.7%에 그친 공과대학의 최진환(기계공학) 학장도 “공학은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이 이

뤄져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전공과목을 강사에게 맡기기 어렵다”며 “전공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능하면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게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교원 구성에 따른 차이를 체감하고 있었다.

3면에 계속 →

2026-1학기 전공기초·전공필수 담당 전임 교원 대비 강사 비율 (%)



다전공 제도 총괄할 미래교육처 출범 '아직'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다전공 의무이수제를 총괄하게 될 '미래교육처'가 현재까지도 공식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부는 그간 미래교육처를 다전공 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밝혀왔기에, 준비 방향을 잡지 못한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래교육처는 기존 교무처와 교육혁신사업단, 교수학습개발원을 통합·재편해 교육 정책과 학사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대학의 중

장기 발전계획과 교육환경 변화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달 2일 신문방송국 언론4사와의 간담회 당시 본부는 미래교육처를 다전공·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교육과정 운영, 이수체계 관리, 학생안내와 상담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 약 2달이 더거리는 현재까지도 미래교육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거버넌스 개편을 담당하는 기획

조정처에 따르면 현재 미래교육처 신설을 위한 처무규정과 위임전결 규정 개정, 조직 운영체계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 부서와의 협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다전공을 준비하는 신입생들의 혼란이다. 올해 입학해 2학기를 이수한 신입생은 내년 1학기부터 다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학과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선수강 과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행과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재로 다전공 관련 단과대별

신청·승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고, 학생들은 충분한 정보 없이 이번 학기 희망과목담기를 마치게 됐다.

기획조정처는 '처' 단위 행정조직 신설은 단순한 조직 추가가 아닌 기존 부서와의 기능 재설계·인력 운영 체계 정비·예산 구조 검토·관련 규정 정합성 확보를 포함하는 종합과정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전략기획팀 김보영 팀장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출범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새

롭게 출범할 부서들이 순탄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우선했다”며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절차와 검토 과정을 신중하게 밟아가다 보니 시간이 좀 소요된 것”이라 말했다.

현재는 거버넌스 개편 관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하일 기획조정처장은 “2학기 시작 시기를 딱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9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인과도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고 말했다.